



2014 패키징 최신동향 및 산학상생협력 세미나 건강하고 똑똑하며 푸른 사회를 위한 패키징의 진화

코리아팩2014가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코리아팩2014는 서울국제포장전과 국제포장기자재전이 코리아팩으로 통합해 개최된 전시회였다. 코리아팩 기간 동안에는 포장분야, 물류분야, 화장품분야 등에서 다양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6월 11일 열린 '2014 패키징 최신동향 및 산학상생협력' 세미나에서는 세션1 연세패키징 가족회사 기업활동 소개 및 성공적 산학협력을 위한 제안이, 세션2 패키징 관련 최신 동향 및 전망이 소개됐다.

패키징 관련 최신 동향 및 전망에서는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2014년 국내외 최신 패키징 연구동향', 손기목 엘지디스플레이 차장이 '전자제품 패키징 개발동향 및 전망', 문상권 CJ제일제당 부장이 '식품포장재 개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B2B 표준화·공용화 포장재 B2C 친환경·재활용 요구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포장산업의 매출은 2010년 31조2900억원, 2011년 33조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은 거의 없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앞으로 포장산업은 식품 패키징이 주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 및 의약품 포장에 있어서 수분과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차단기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기목 엘지디스플레이 차장은 "전자산업 포장은 전자부품류

의 B2B와 판매중심인 완제품 B2C로 분류할 수 있다. B2B에서는 물류환경 변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친환경 포장재 재질 발굴 및 재사용 시스템 구축, 포장재 표준화·공용화가 요구된다. B2C는 문화와 디자인이 결합돼 있으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부각하고, EPR 등 친환경규제를 준수하는 박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상권 CJ제일제당 부장은 "국내 포장산업은 규모가 작다보니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갖추지 못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실례로 아주 저렴한 두 가지 재료를 여러 방식으로 혼합했더니 잘 찢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찾기 위해 수차례 다시 시도해봤지만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증거다"고 토로했다. 문 부장은 "앞으로 포장은 더 얇고 가볍게 만드는 동시에 친환경 소재가 인기를 끌 것이다. 이를 위해 강성을 지닌 원료 개발이 필요하며, 고속 사출기술, 정밀도 높은 금형제작이 요구된다. 또한 미강, 밀겨 등 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포장재, 갈대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포장재가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